

2 0 1 2
SPRING
Vol. 30

세계 초우량 기업들	COVER STORY	06
항해가든 원익	DREAM SECTION	24
원익인이 함께하는 사보	CHALLENGE SECTION	34
	PASSION SECTION	42
	LIFE STORY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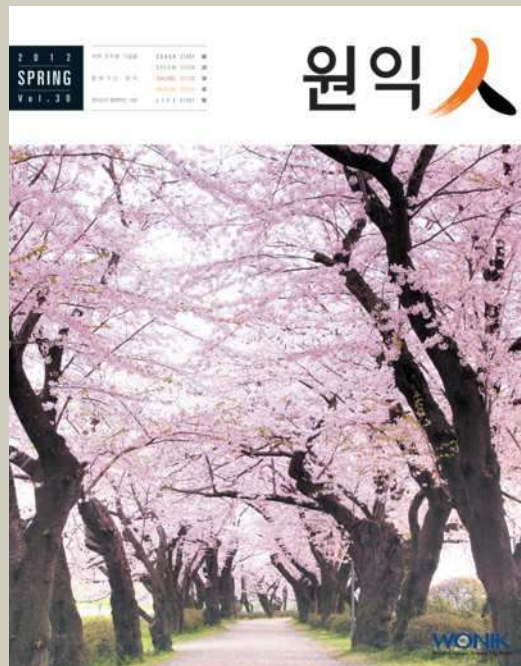
원익인



自有 + 疏通

'행동의 자유', '직원들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를 위한 도전을 아끼지 않는 창조적인 원익인이 되자

COVER STORY



COVER STORY 커뮤니케이션 - 자유와 소통	06
WONIK NEWS 원익 계열사 소식	08
DISCOVERY OF BADUK 제7기 원익배 십단전 최철한, 일곱 번째 도전만에 십단 획득	18
CEO COLUMN 소통이 기업문화를 변화시킨다	20

CONTENTS

COVER STORY

Cover Story 커뮤니케이션 - 자유와 소통	06
Wonik News 원익 계열사 소식	08
Discovery of Baduk 제7기 원익배 십단전 최철한, 일곱 번째 도전만에 십단 획득	18
CEO Column 소통이 기업문화를 변화시킨다	20



원익사보 2012년 봄호 원익인 통권 30호

발행인 조용래

발행일 2012년 4월

발행처 원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사 보 '원 익 사' 은 한국 간 행 물 윤 리 위 원 회 의
윤 리 강 령 및 실 천 요 강 을 준 수 합 니 다



D R E A M

C H A L L E N G E

P A S S I O N

L I F E S T O R Y

Special Edition 24
반도체 강국 위상 속에
원익의 모습도 함께 빛났다

Self Innovation Note 28
고객의 입장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한다

Special Edition 30
본격적인 세정사업의
시작과 함께 세라믹 부문의
강화를 선언하다

Never ending challenge 34
과감한 정리와 미래의 투자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필립스

Special Edition 36
비뇨기과 관련 질환 시술로
홀렙 수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다

Wonik Dream Team 40
자유로운 소통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Zoom in 42
즐겁게 봉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New Employee Training 44
열정적인 분위기 돋보인
공채인사자 3기 교육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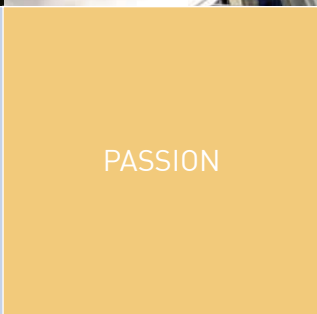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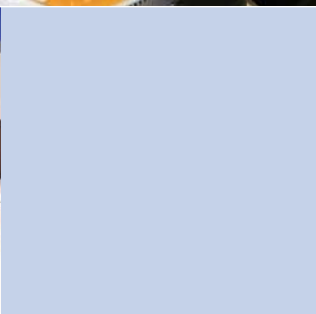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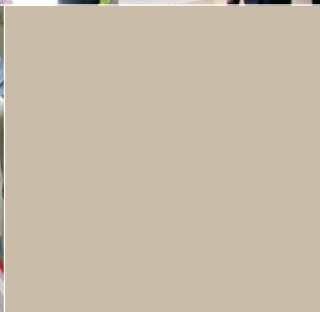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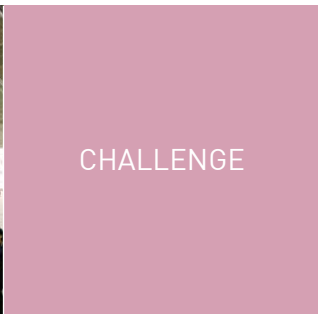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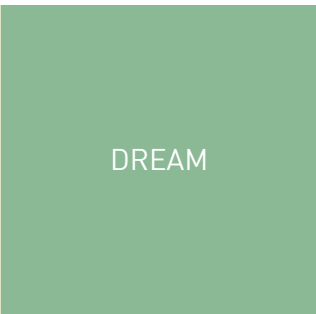
Scene of Welfare Service 46
도배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다

Economic Report 50
뚜렷한 경제회복 징후
부재에 대응하자

MUSICAL 52
전쟁 속 남녀의
사랑을 담은 로맨스
'닥터 지바고'

Exhibition 53
친근한 그림으로
엄마와 어린이에게 사랑받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Health 54
미리미리 준비해서
봄철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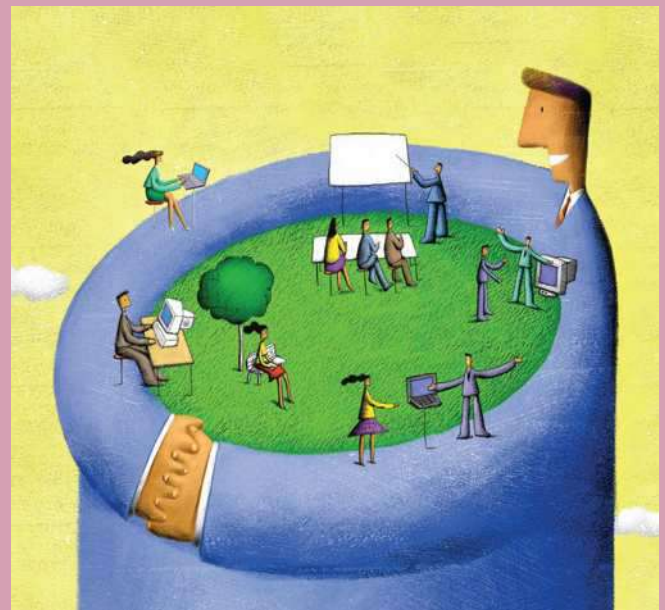


自 有 와 疏 通

● 휴렛 팩커드의 커피타임

1939년, 두 창업자 휴렛(W.R.Hewlett)과 팩커드(D.Packard)는 사업을 초기에 허름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전 10시와 오후3시에 아내가 만들어 주는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며 의논을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HP(휴렛팩커드)는 이를 계승해 오전10시와 오후3시에 “커피타임”을 갖고 있다.

능률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임에도 사원들의 휴식을 위한 커피타임을 HP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카페테리아에서 음료와 도넛 등을 즐기는 15분간의 시간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은 HP의 인간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원활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기업문화의 경쟁력 자유와 소통

이미 국내 기업들도 발 빠르게 기업문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권장하여 직원들 간의 창조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의 기업문화를 바꾸고 임원과 사원 사이의 문턱을 낮춰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대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 간의 소통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기업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잭 웰치 전 GE(General Electronics) 회장도 소통을 강조하면서 “경쟁 속에서 부단히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 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 “관리라는 것은 첫째도 대화요 둘째도 대화요 셋째도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점은 오늘날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새로운 30년 도약을 시작하는 원익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한 원익은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30년’ 원익의 새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신뢰, 투명, 공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 소통, 행복을 위한 기업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원익 이용환 회장은 “2011년, 2012년 우리사회의 테마는 변화”라고 언급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는 자유, 소통,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기존 사업에 안위를 하던 기



업은 대부분 몰락했다.”고 밝히면서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또한 ‘행동의 자유’, ‘직원들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를 위한 도전을 아끼지 않는 창조적인 원익인이 될 것을 주문했다.

이용환 회장을 필두로 원익은 전계열사 임직원 모두 기업문화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문화 활성화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자유로움 속에서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직원식당과 휴게실을 개선하는 등 작은 부분부터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들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원익은 ‘세계 속 초우량기업 원익’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성장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원익

제2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주)원익은 2012년 3월 29일(목) 9시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실적 승인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에 이용한 회장, 차동익 대표이사가 연임 되었으며, 이덕환 상무가 신규선임 되었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차동익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전략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원익

글로벌 의료기기社 마인드레이와 국내독점 유통계약

(주)원익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마인드레이(Mindray Bio-Medical)와 3월 국내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초음파 진단장비분야 사업을 강화키로 하였다. 마인드레이는 2006년 뉴욕증시(NYSE)에 상장되었으며 시가총액이 약 3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이다. 환자모니터링 기기 분야에서 GE와 필립스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원익은 고가의 프리미엄급 장비를 쉽게 선택하기 힘든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검진센터 등에 합리적인 가격의 고기능 초음파진단장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하이엔드 급 초음파진단장비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주)원익

2012년 2분기 전국 PANTAX 대리점 사장단 회의

(주)원익은 2012년 4월 6일~7일 메이플비치에서 1분기 대리점별 실적 분석 및 2분기 예상실적 보고 및 건희사항 토의를 위한 전국 PANTAX 대리점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대리점 판매 현황분석과 경쟁사 동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2분기 판매 활성화를 위한 회의였으며 행사에서 실적 1위인 대전 충청지역 (주)엔에스메디칼 대표 양승은 사장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금번 회의는 대리점 사장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영업마케팅 전략에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분기별로 대리점 사장단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주)원익큐엔씨

원익퀀츠 사명 변경

원익퀀츠는 지난달 23일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세라믹스 사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사명을 원익QnC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원익QnC는 반도체용 퀀츠웨어 분야에서는 세계적 업체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으나, 세라믹스 분야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 소재산업 회사로 도약하고자, 지난해 세라믹부분 자회사 세라코를 흡수 합병한 이래 사명에도 세라믹(ceramics)이란 용어를 추가하여 세라믹 사업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였다. 회사의 새 이름에 들어가는 '큐엔씨'는 'Quartz & Ceramics(퀀츠 & 세라믹)'의 약자다. 원익QnC 박근원 대표이사는 사명변경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주)원익QnC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주)원익QnC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주)원익큐엔씨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원익QnC(074600)는 지난달 23일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구미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총주주수 4,104명, 발행주식총수 12,688,000주중 47%가 참여한 가운데 총회 의장인 박근원 대표이사의 개회선언에 따라 개최하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11년 영업보고 및 감사의 감사보고와 삼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인 선임보고를 하였고, 결의사항으로 재무제표 승인, 사명변경을 포함한 정관일부 변경 및 이사, 감사보수한도를 승인하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안건 승인 절차에 앞서 지난해의 경영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2012년도에도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글로벌 소재부품전문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주주들의 이해를 높였다. 경영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원익QnC 박근원 사장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부터 반도체 시장 경기회복과 2010년 대규모 투자로 인한 Capa 증설 및 원가절감 극대화로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주)원익큐엔씨

원익QnC 세정사업부 공장 신축



원익QnC는 지난달 27일 반도체 제조 공정중 Diffusion(열산화), LPCVD(박막증착) Process 장비에 사용되는 초정밀 석영(Quartz Ware) 부품의 정밀세정을 위하여 세정사업부를 발족하고자 공장을 신축하였다. 이는 작년 4월 사업계획 구상한 이레 신원종합

개발(주)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축면적 3,704.78㎡(1,123평), 연면적 7,786.71㎡(2,360평)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6개월만에 신축되었으며, 쾌적하게 설계된 사무동과 최첨단 크린룸과 설비로 무장한 공장동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휴게공간 및 체력단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동의 경우 2,111㎡(640평)규모의 크린룸을 시공하였다. 또한 공조시스템은 중앙제어 및 개별제어가 가능하도록 시공하였으며, 현장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소농도 측정 및 차단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분에서도 모든 시설을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환경사고 예방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세정사업부 공장신축은 세계로 뻗어가는 원익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매출증가에 일익을 담당하여 퀴츠웨어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소재전문회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Quartz 및 Ceramics 제품 제조뿐만 아니라 정밀 세정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고객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Part's관리의 시너지효과도 제공하여 글로벌 초일류 소재 전문회사로서의 성장과 회사의 대외신인도와 경영실적에도 크게 기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원익큐엔씨

원익QnC 주말농장 분양

원익QnC는 회사 부근 천생산 검성지 입구의 주말농장을 직원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검성지 텃밭은 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올해도 600여평의 텃밭에 고추, 상추, 옥수수, 감자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토질이 고른 상태로 분양하며, 원익QnC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분양받은 사원들은 1년 동안 희망하는 품종을 파종할 수 있으며, 봄·가을 파종기 및 수확기에는 전 가족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도 함께 가지는 등 직원은 물론 가족간의 단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일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작은 나눔의 실천’ 원익 IPS 한마음 봉사단

지난 2월과 3월 원익IPS 한마음 봉사단은 평택 북부 노인 복지회관에서 평택시 내 독거노인 및 노약자(약 350명)분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진행하였다. 원익IPS 내 각 사업부별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준비 및 대접을 하였으며, 어르신들께서 ‘봉사해주는 여러분 덕에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 고맙다.’고 하시며 봉사자들의 두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원익IPS 한마음 봉사단은 올해 초 임직원들의 봉사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의 봉사 전문가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원익IPS 한마음 봉사단은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 선진 기업 봉사단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둔포 Campus 건설공사 안전지원제

원익 IPS는 2012년 3월 27일 충남 아산테크노밸리에 신규로 건설중인 둔포 Campus 공사현장에서 안전지원제를 실시하였다. 둔포 Campus는 아몰레드 제조장비를 생산하게될 전초기지로서, 1차 3000평, 2차 2000평 등 총 5000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1차 공사는 2012년 5월말일 준공을 목표로 약 25% 공정이 진행중이다.

이날 지원제에는 발주처인 원익IPS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시공사 대표 및 공사직원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공사완공까지 무재해 및 무사고를 다짐하고, 적기에 공사가 완공되어 아몰레드 사업이 잘 수행되기를 염원하였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지난 3월 23일 진위 본사에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1기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일부변경, 상근 감사의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등이 있었으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 처리되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세미콘 코리아



(주)원익아이피에스 (대표 이문용, www.ips.co.kr) 는 지난 2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재료장비 전시회 'SEMICON Korea 2012' 에 참가해 PECVD(MAHA MP), ALD (DB21), Metal CVD (AKRA), MOCVD (Epion), LED Etcher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SMICON 전시회 및 LED 전시회 두 곳에 모두 부스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전시 기간에는 평년보다 부스 방문객이 40%이상 증가하였으며, 주요 고객사의 관심 또한 증가하여 미팅룸을 총 5개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팅룸이 3일동안 풀가동 되었다. 또한, 제품홍보를 위한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Aving News 등 주요 언론매체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회사이미지 홍보를 위해 반도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HIGH TECH U Korea reunion을 진행, 반도체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한 회사설명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반도체 핵심인재 영입을 위한 Semicon job Fair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여 원익 반도체 3사가 함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승진자 교육

(주)원익아이피에스 (대표 이문용, www.ips.co.kr) 지난 3월 7일(수)부터 23일(금)까지 “2012년 승진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신임부장(15명), 신임과장(27명), 신임대리(26명) 각각 2박3일의 합숙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 직급의 Leader 化”이다. 신임부장은 WIPL(WONIK IPS Performance Leader), 신임과장은 WIRL(WONIK IPS Relation Leader), 신임대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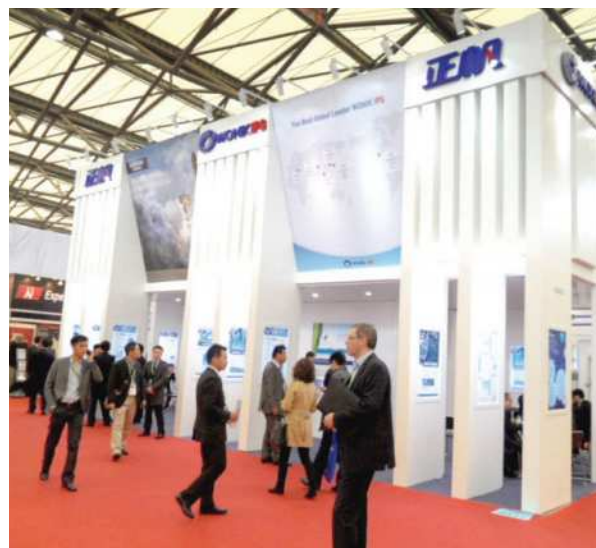


WITL(WONIK IPS Task Leader)라는 Title로 과정이 개발되었다. 둘째, 기업문화의 전파이다. 직급별 공통역량강화에만 집중하던 기존 승진자과정과 달리 각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 원익 핵심가치(자유, 소통, 행복)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화(體化)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원특강 강화이다. 입소식 혹은 퇴소식에만 잠깐 진행되던 임원간담회를 각 과정별 2시간의 특강으로 구성하여, 회사에서 할 수 없었던 허심탄회한 강의내용을 통해, 주요 임원과 승진자들간의 소통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한편, 귀중한 인생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세미콘 차이나

(주)원익아이피에스 (대표 이문용, www.ips.co.kr)는 지난 3월 20일(화)부터 23(금)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렸던 ‘SEMICON China 2012’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SEMICON China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재료/장비 행사로 1988년 이후 올해 24회를 맞이하였으며, SOLARCON China, FPD China 동시 개최로 총 5만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중국 Agent인 gentech社와 공동으로 전시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우시 하이닉스 및 SMIC의 구매팀과 실질적인 설비 구매 미팅을 진행하여 해외전시회의 근본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향



후에도 (주)원익아이피에스는 Semicon China 및 Semicon Tiawan 전시회 등 주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주)원익아이피에스
Global Top 10, 매출 1조를 향한 인사 워크숍 실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3.16일부터 3월 1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릉 메이플 비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장급 이상 32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인사 워크숍을 실시했다.

금번 인사 워크숍은 'Global Top 10, 매출 1조 달성을 위한 열쇠는 핵심역량 집중에 있다'라는 대표이사(이문용 부회장)의 경영이념하에, 핵심역량 집중과 기업문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날씨는 을씨년스러웠지만 토론의 열기만큼은 뜨

거웠던 금번 워크숍은 그룹별 토의, 브레인 스토밍, 자유토론처럼 여러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첫째,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상 진단

둘째, 신규 채용인력 조기 전력화 방안 및 outsourcing 확대 방안

셋째, 조직간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의 명확화 및 세분화

넷째, GWP를 위한 기업문화 활성화 및 CEO와의 자유토론

금번 워크숍은 각 팀간의 R&R을 명확화하고, 핵심인재 확보 및 기업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모을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핵심역량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핵심인재에 대한 경영진 및 각 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개선된 의견들이 현업에 적용되고 실현됨으로써 매출 1조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주총회 개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0시 오창 본사 3층 강당에서 상장 후 첫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 의 건, 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 건, 당사 임직원에 대한 3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이 있었다. 당사 모회사인 최대주주인 원익아이피에스와 주요 주주들(우리PF, 스틱창투 등)의 참석으로 원만히 상장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 되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TPM Kick-Off

지난 4월 2일 (주)원익머트리얼즈 임직원 일동은 TPM 활동 추진 Kick-Off 를 실시하였다.

혁신 활동 VISION으로 “(주)원익머트리얼즈 TPM 활동 체계 구축”을 정하고, 1차년도 TPM 활동은 “기본에 충실한 TPM 혁신 기반 확보”로 설정하여, 전 사원의 변화를 유도하고 현장, 현물에 충실한 활동 System 구축을 통해 설비 가동의 안정화와 변화 주도적 인재를 양성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전 임직원은 Kick-Off를 통해 성공적인 TPM 활동추진을 다짐하였으며, 이에 앞으로 전 임직원이 상호협력 전원 참가함으로써 TPM 효과를 배가시키고, 강한 실행력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본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입학자녀축하 간담회

지난 2월 22일 라마다 호텔에서 (주)원익머트리얼즈 직원들의 자녀 입학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 가 마련되었다.

이준열 대표는 직접 직원 배우자들을 만나 자녀 입학 축하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즐거운 대화의 장으로 좋은 시간을 만들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임직원 자녀의 입학 축하하는 선물을 축하 메시지와 함께 배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가진 직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을 높이고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한 조직 융합을 시도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준열 대표는 앞으로 임직원 자녀 입학 선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임직원 가족을 위한, 가족을 생각하는 복지가 적극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특수가스부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추광호 (주)원익머트리얼즈 상무가 특수가스부문 선진안전기술 공급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가 지난 2월 24일 제11회 기술사의 날을 맞아해 산업현장 기술을 주도해온 기술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에서 일반산업가스 및 특수가스업계에서는 최초로 추광호 상무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화공부문)을 수상했다.



추 상무는 반도체 · LCD · LED · 태양광산업에 에칭용 · 증착용 · 확산용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NF₃, 초 고순도 NH₃, PH₃, Dynamic Blending, Organosilane, TiCl₄, GeH₄ 등)을 한국인 엔지니어로서는 국내 최초로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삼성반도체, 삼성LCD, LG Display,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 유수기업보다도 유리한 위치로 선점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추 상무는 국내최초로 반도체용 특수가스설비의 설계 및 취급에 관한 기술실무서적인 '산업 · 특수가스 안전관리법'을 저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포스코, 하이닉스 등 외래강사 등으로 활동함으로써 선도적인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주)
제 29기 정기 주총 실시

1. 일시 : 2012년 3월 27일 오전 9시
2. 주요안건
 - 1) 제29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 2) 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의 내용을 토대로 정관 일부 변경
 -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임기가 만료되는 이용환, 임창빈 이사 / 이홍재 감사 재선임



신원종합개발(주)

전주시 효자동 신원 아침도시 분양(예정)



신원종합개발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 대지면적 3,122㎡(약 945평), 연면적 29,625㎡(약 8,962평), 지하3층~지상 34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오는 7월 분양(예정) 목표로 현재 설계 및 인·허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전세대를 경쟁력있는 전용면적 약84㎡로 설계하고 남향 및 삼천천, 모악산의 조망을 확보하여 전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부 신시가지는 도청, 경찰청이 위치한 신흥개발지역으로 전주지역에서도 가치상승의 기대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사업지 인근은 고층 주상복합이 계획되어 본 사업지는 고층 타운의 랜드마크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주)

신원종합개발 사이버 연수원 운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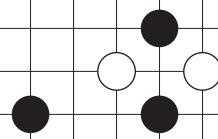
신원종합개발은 2012년 3월 1일~10월 31일까지 온라인 교육전문기관인 크래듀와 연계하여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키로 하고 3월 자사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온라인 교육센터를 오픈하였다.

전문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specialist 및 리더십, 마인드 Set-up, 타직무 습득을 통한 Generalist 양성을 목표로 하여 현재 172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제7기 원익배 십단전

최철한, 일곱 번째 도전만에 십단 획득



최철한 9단

최철한 9단이 일곱 번째 도전만에 십단 (十段) 타이틀을 품에 안았다.

9일 한국기원 1층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7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3번기 제2국에서 최철한 9단이 강동윤 9단에게 15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며 종합전적 2대0으로 대회 첫 우승에 성공했다. 최9단은 3일 열린 제1국에서도 19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결승 2국은 최철한 9단의 장기인 공격바둑의 진수를 보여준 한판이었다.

백34에서 40까지 좌하귀에서 실리를 취한 최철한 9단은 흑75 이하 79까지 집을 벌면서 백돌을 공격해 때 이르게 승기를 잡았다. 흑107이 결정타로 백 대마가 패에 걸려선 해 볼 데가 없는 국면이라는 게 해설을 맡은 유창혁 9단의 총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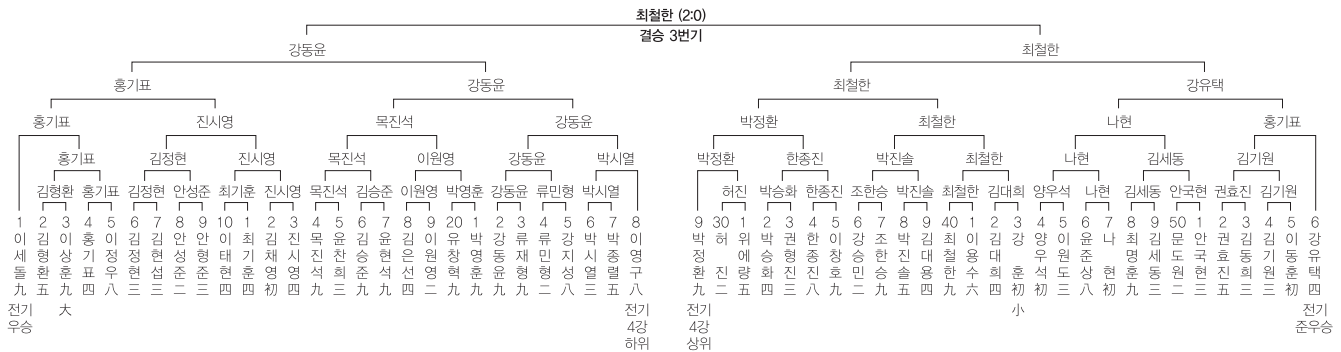
십단전 우승으로 최철한 9단은 지난해 12월 제16기 박카스배 천원전 우승 이후 4개월 만에 정상에 오르며 국내기전 2관왕에 올랐다.

4월 한국랭킹에서 강동윤 9단에게 14점 차로 뒤져 4위로 내려앉은 최철한 9단은 십단전에서 우승하며 슬럼프 탈출의 전기를 마련했다. 최9단은 결승2국 직전까지 올 시즌 8승 8패의 반타작에 그쳤고, 특히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5연패하는 등 최악의 부진에 빠진 바 있다.

예선부터 출전해 파죽의 7연승 행진 끝에 대회 첫 결승행을 일군 최철한 9단은 강동윤 9단에게 완봉승하며 9전 전승으로 완벽 우승을 이끌어냈다. 최철한 9단은 십단전 결승 이전까지 강동윤 9단에 게 5승 7패로 뒤졌지만 결승전 2연승으로 강 9단과의 상대전적에서 7승 7패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최 9단은 1, 2기 대회에서 4강에 올랐지만 결승 진출은 이번이 처음 이었고 첫 결승 진출을 우승



제7기 원익배 十段戰 본선 대진표(최종결과)



지난 대회부터 56강 토너먼트로 확대된 본선 토너먼트는 원익배 십단전의 독특한 방식인 차등 시드제로 열리고 있다. 56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피라미드 토너먼트로 결승 진출을 다했으며, 십단 타이틀 주인공은 결승 3번기로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전기 대회에서는 이세돌 9단이 강유택 3단(당시)에게 2-1로 승리하며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경향신문사와 바둑TV가 공동 주최하고 원익이 후원하는 원익배 십단전의 총 상금규모는 4억원이며, 우승상금 5000만원으로 규모 면에서 국내 전체 기전 중 3위에 해당하는 기전이다.

지난해 9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7기 원익배 십단전은 본선 진출자 총 56명의 치열한 접전과 명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최철한 9단의 생애 첫 원익배십단전 타이틀을 획득하며 막을 내렸으며, 이번달 중순 시상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로 여덟번째를 맞는 제8기 원익배 십단전은 올해 9월부터 대장정의 막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

으로 장식했다.

한편 강동윤 9단도 최철한 9단과 마찬가지로 7연승 퍼레이드를 벌이며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최 9단의 벽에 막히며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십단전 준우승은 강동윤 9단 개인적으로는 최고 성적. 그동안 강 9단은 십단전 본선 16강(1기, 6기)에 오른 게 전부였다. 무관 탈출을 노렸던 강동윤 9단은 십단전 패배로 2년 9개월 만의 타이틀 획득에도 실패했다. 강동윤 9단은 지난 2009년 제22회 후지쯔배에서 우승한 이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소통 疏通 이



“현재 우리 사회의 테마는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조직 전체가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이 잘 교류될 수 있는 회
 의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시작이 커뮤니케이
 션, 즉 소통입니다.”



+ 기업문화를 + 변화시킨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행복한 직장을 만든다

3월 29일 오전, 이문용 부회장이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Life Story In Popsong” 강연이 (주)원익아이피에스 8층 미디어룸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엘튼 존(Elton John) 60세 기념 라이브 콘서트 앨범 수록곡이 소개 됐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노랫말과 배경 설명을 듣는 임직원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이번으로 3회째인 강연을 이제는 다들 즐기는 눈치다.

엘튼 존의 ‘Empty Garden’을 직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다는 이문용 부회장은 “팝송 강연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서로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좋은 회사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딱딱한 회의실과 사무실을 벗어나서 긴장을 풀고 서로 자유롭게 소통도 할 수 있게 되면 사고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임원들과 점심 약속을 따로 잡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함께 식사하면서 회의실이 아닌 일상 속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따로 식사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요즘 직원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어떤 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지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한 목표의 공유 함께 발전하는 (주)원익아이피에스

이문용 부회장은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신년사에서 이 부회장은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커뮤니케이션”임을 강조했다는데, 이는 원익 이용환 회장이 강조한 자유, 소통, 행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평소 과장급, 대리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자주 진행하는 이 부회장은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공유해 현재의 상태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한 방향을 향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가 아닌 일상에서 많은 직원들과 만나고 소통을 하는 것이 곧 회사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이문용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위 벗어던지고 먼저 다가서는 적극적인 자세야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나아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 또한 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DREAM



24 Special Edition
세미콘코리아 2012
반도체 강국 위상 속에 원익의 모습도 함께 빛났다



28 Self Innovation Note
(주)원익투자파트너스 최성일 파트너
고객의 입장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한다



30 Special Edition
(주)원익퀵츠 사명변경 및 세정공장 준공
본격적인 세정사업의 시작과 함께 세라믹 부문의 강화를 선언하다

반도체 강국 위상 속에 원익의 모습도 함께 빛났다

국내 최대의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 전시회 '세미콘(SEMICON) 코리아 2012'가 지난 2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전시회에 참가한 총 20개국 500여 사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관한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였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세미콘코리아는 쏟아지는 관람객과 바이어로 한국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25주년을 맞은 세미콘코리아는 개막식 행사에서 UC 버클리대학의 첸밍 캐빈 후(Chenming Cavin Hu) 교수와 IMEC의 룩 반 데 호프(Luc Van Den Hove) 사장 겸 CEO의 기조연설 비롯해 반도체 공정 기술 심포지엄, 구매상담회, 마켓 세미나, 국제 SEMI표준 세미나, 시스템 LSI 포럼, MI 포럼, ESD 포럼,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풍성한 구성을 보였다.

원익에서는 반도체 관련 업체 3개 계열사 (주)원익퀵즈(현 (주)원익큐엔씨),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가 행사에 참가해 제품 전시와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시회장 입구에 자리잡은 원익은 2층 규모의 3개 계열사 부스를 한자리에 모아 블루와 화이트 컬러로 도약과 발전을 시각화했고, 30주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여 전문성을 돋보이게 구성했다. 고객과의 만남을 대비한 곳곳의 회의실도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 첫날에는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객들을 맞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삼성, 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LCD/LED 관련 회사와 장비제조사, Gas Plant 와 관련,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을 연출했다.

작년에 이어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크게 ‘Semiconductor’, ‘Solar & Display’, ‘TGS(Total Gas Solution)’로 세 분류로 나뉘어 소개됐고 각 장비별로 짜임새 있는 전시회구성이 돋보였다. PECVD 대표장비인 MAHA MP를 비롯해, DB21™ (ALD), AKRA™ (Metal CVD) 등 생산 장비의 종류와 성능 및 특징을 자세히 소개했고 관련 업체 방문객과 관람객들에게 작년에 이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TGS’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Gas Purifier, Gas Supply System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가스 제어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고, ‘Solar & Display’군에서도 태양전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 ‘Solar Cell Dry Etcher’와 ‘FPD Dry Etcher’를 자세히 소개했다. ‘TFT-LCD Panel’ 제조의 핵심장비인 ‘FPD Dry Etcher’는 현재 대면적 40인치 이상의 8세대 LCD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AM-OLED/LTPS 시장에 겨냥한 ‘AMOLED Evaporator’도 함께 소개했다.



(주)원익퀵츠는 Tube, Boat, Cap, Bath, Accessory, Etch Part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모성 부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원익퀵츠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00mm 웨이퍼 양산시스템을 갖추면서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기술 및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반도체 공정에 부응하는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 부품들을 전시해 다시 한 번 기술력을 뽐냈다. 특히 국산화 기술로 만들어진 신소재 부품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정공정은 고객사에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점차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원익퀵츠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는 물론 세계 1위를 위한 걸음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LED, FPD 에 사용되는 고순도 특수가스의 종류와 규모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생산과정과 설비를 알기 쉽게 그림과 도표화하여 관람객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또한 향후 생산시설 추가·확장 계획을 알리고 새로운 특수가스를 발굴하는 등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생산시설과 과정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많은 외국인 바이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드라이빙 더 일렉트로닉스 레볼루션(Driving the Electronics Revolution)’ 을 주제로 반도체 전 공정과 후 공정



및 부품재료 등 장비재료산업 전 분야를 선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반도체 신기술과 최신 이슈에 대한 공개세미나인 ‘텍스팟(TechXPOT)’ 이 전시장 내 특별 존에서 진행됐다.

조현대 세미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은 2010년과 비교해 다소 부진한 한해를 보냈지만, 올해 전망은 비관적이지 않다”며 “하반기쯤 업황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지난해 정말 어려웠던 LED 산업의 경우 상반기 전망도 낙관적이진 않지만, LED 조명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고객의 입장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과 성능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매 후의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되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만다. 단순히 구매자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업들도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기계발을 위해 도전하라

(주)원익투자파트너스에 근무하는 최성일 파트너는 올해로 금융업 경력만 13년째를 맞은 베테랑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금융업에

종사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교 시절 엔지니어를 꿈꿨던 공대출신의 그가 금융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다.

“새로운 것,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IMF가 터지면서 금융 쪽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유학 준비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던 상황에서 입사원서를 넣었던 증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거죠.”

투자금융 기법과 용어도 낯설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최성일 파트너의 학구열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정도로 불타올랐다. 평일에는 업무 실무를 익히면서 주말에는 회계사 수험생들과 학원에서 회계 과정을 수강했다. 실무차원에서 필요한 공부들을 하나씩 한 지 2년 후, 그는 국제재무분석사(CFA)도전을 감행한다.

최성일 파트너의 도전에는 이유가 있었다. 공대 출신은 금융적인 지식과 이론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깨뜨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해 보자는 생각으로 겁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회사 업무와 병행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1년에 3~4개월은 주말마다 독서실에서 고3수험생의 생활을 반복했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Level 1만 합격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마음과 달리 Level 1을 통과하고 나서는 끝까지 해보자는 욕심도 생겼다. Level 2, Level 3 까지 도전은 이어졌고 결국 3년 만에 국제재무분석사 Level 3까지 모두 합격하기에 이른다. 국제재무분석사 준비는 최성일 파트너에게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자산을 제공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고객의 마음으로 일하라

최성일 파트너는 “사실 국제재무분석사 커리큘럼은 국제 투자금융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Venture Capital 실무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대신에 그는 “이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지식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필수수험과목인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금융업 종사자가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투자금융분야에서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CFA 과정이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윤리학에

는 투자업 종사자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저를 전문가로 생각하고 찾아옵니다. 믿는 겁니다. 투자업 종사자로서 이런 고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고 그들의 입장과 회사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잘 모르는 것도 윤리규정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최성일 파트너는 투자업 종사자는 항상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배제하고 끊임없이 현 상황을 분석해야하며 이성적, 합리적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부지런히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실성을 가지고 일하라

최성일 파트너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임을 그는 강조했다. 투자업 중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가짐은 신뢰도와 직결된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발길이 끊어지는 것이 이 쪽 업계의 현실이다. 그는 “힘든 상황을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면 고객도 그 마음을 전달 받는다.”고 덧붙이면서 “고객의 자산이 곧 나의 자산이고 회사의 자산이라는 마음으로 건전한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에는 약 1500명 정도가 국제재무분석사 자격을 갖고 있다. 1년에 한번 뿐인 시험을 Level 3까지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는 기쁨도 크지만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본지식과 직업 윤리의식을 세워준 기회가 그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다. 현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힌 최 파트너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도 만족하고 나 스스로의 커리어도 높이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성일 파트너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본격적인 세정사업의 시작과 함께 세라믹 부문의 강화를 선언하다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업체 (주)원익큐엔씨는 지난 2월 세정공장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세정사업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4월부터 사명을 기존의 (주)원익쿼츠에서 (주)원익큐엔씨로 변경하면서 세정사업과 세라믹 사업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 세정공장 전경



• 운동시설



• 휴게실 / 점권실



• 잔디운동장

새로운 변화로 밝은 미래를 꿈꾸다!

(주)원익큐엔씨는 지난해 9월말 세정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세정사업 양산라인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5개월이 지난 2월에 세정공장이 준공됐다. 신축공장은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작업실은 물론 방문객을 위한 접견실과 직원용 식당 및 휴게실,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옥상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 야외에서 가볍게 축구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신축된 세정공장 건물에 자리잡은 세정사업부는 입고된 제품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세정과 건조 후 품질검사에 이르는 작업을 총 관장하고 있다. 세정사업부에서 개발한 관리 프로그램 “MES Client”는 의뢰제품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고객사의 만족도 함께 높이고 있다.

세정사업부 김영수 부장은 “MES는 제품을 각각의 기준에 맞게 분류하고 도표화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품번호를 저장해서 폐기하는 순간까지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둬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제품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라믹 부문의
 힘찬 재도약으로
 세계를 뚫는다!**

세정사업부의 상황실 모니터에는 작업장의 온도와 습도는 물론, 현재 작업 중인 기계와 제품이 어떤 것인지, 현재 처리율은 어느 정도인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 현재 작업 진행 상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MES 관리 시스템은 전산일치가 되지 않고 전산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경쟁사에 비해 보다 투명한 프로세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만족을 동시에 얻어내고 있다.

현재 세정사업부 작업실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전체 장비의 30%가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으로 6월까지 6~7개 라인이 가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업장을 꾸민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장에서 수용 가능한 제품 수는 하루 평균 90여개 정도. 앞으로 모든 장비가 갖춰지면 가능한 작업량이 3~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주)원익큐엔씨는 지난해 세라믹 부문을 확대 및 활성화하면서 자회사인 세라코를 흡수합병하였고 이를 사명에 반영해 기존 (주)원익쿼츠에서 (주)원익큐엔씨로 사명 변경을 완료했다. '큐엔씨'는 '쿼츠(Quartz)&세라믹(Ceramics)'의 약자로 쿼츠와 세라믹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회사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CHALLENGE



34 Never Ending Change
과감한 정리와 미래의 투자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필립스



36 Special Edition
제4회 홀뮴(Holmium)레이저포럼
비뇨기과 관련 질환 시술로 홀뮴 수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다



38 Wonik Dream Team
(주)원익머트리얼즈 커뮤니케이션 클러스터 활동
자유로운 소통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과감한 정리와 미래의 투자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필립스

한 때 필립스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내린 컨설팅 결과는 '필립스가 소비자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오던 필립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 Partnering to drive change

1891년 엔지니어였던 제라드 필립스와 세일즈 맨이었던 동생 안톤 필립스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제조업체로 출발한 필립스는 해외 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수요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 효과적인 이익을 창출해냈다.

그러나 유럽국가 간 점진적인 무역장벽의 해체가 진행되면서 필립스의 생산 판매 방식은 점점 한계에 직면한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 중심을 고집한 필립스는 세계 최초로 오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등을 개발했지만 경쟁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만다.

마침내 1990년, 전자부문 외에 음반, 부동산 등 60개 사업 분야에 29만 명의 직원들이 종사했던 필립스는 경상적자가 27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창사 100주년을 한해 앞두고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다.

얀 팀머(Jan Timmer) 회장은 전사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영혁신 활동과 신(新)세계화 전략으로 불리는 '센추리온(CENTURION)' 운동이다. "새로운 기술변화 추세와 상품화 전략에서 대응력을 잃은 필립스가 만성 적자의 늪에 빠져 멸종 직전의 공룡의 모습과 같다"고 표현한 그는 단기수익의 획기적인 증대, 자기혁신에 대한 동기부여, 창조적·도전적 기업문화 정착이란 3가지의 목표를 내걸고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를 몰아내는데 앞장섰고, 명령으로 통제하던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면서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업문화로 탈바꿈시켰다.

코르 분스트라(CorBoonstra)회장은 전략적으로 장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을 과감히 매각한다. 3000명의 직원을 400명으로 줄이



• Optimizing our ecological footprint



• Global leadership through local relevance



• Confidence and speed in clinical diagnosis

는 인력감축도 단행한다. 그 후 1998년 휴대폰, 디지털 TV,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웹TV 등의 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짧은 기간 동안 직원 감축과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변화시킨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필립스는 2000년에 세웠던 목표 순자산이익률 24%를 달성해낸다.

그의 뒤를 이어 2001년 취임한 헤라트르 클라이스 테를레이(Gerard Kleisterlee) 사장은 다시 한 번 변화를 단행한다. 휴대폰, 오디오, 팩스 사업을 매각하고 공장과 직원을 줄였다. 2006년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으로 그는 '기술 필립스'의 심장을 매각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존 사업의 축소로 얻은 자금으로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기 및 조명 분야의 기업을 인수하고 성장한다.

필립스의 목표는 과거 1980년 이후 '기술만능주의'를 추구하던 필립스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

나 제품개발로 인간 삶의 가치를 향상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으로 '센스 앤 심플리시티(Sense and Simplicity)'를 내걸고 설명서 없이 고객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미래 성장산업 투자로 필립스는 2003년 9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평가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 세계 최우수 지속가능성 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환경과 제품에 관한 책임분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시민으로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최근 필립스는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2008년 친환경 제품의 매출은 53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모폴리스 조명 시스템은 2005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유럽과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를 50%까지 감소시켰다. 또한 헬스케어 제품 매출도 35%나 증가했으며,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부분 친환경 제품의 매출 비중은 2009년 25%까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인간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로 성장을 이루어낸 필립스의 모습은 많은 기업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다.

글 김도용

필립스 웨이(Philips way)

필립스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필립스의 근무환경의 비전은 4D(Delight, Deliver, Develop and Depend)로 요약된다.

- 고객을 즐겁게 한다(Delight customers)
- 임무를 반드시 수행한다(Deliver on commitments)
- 인력을 계발한다(Develop people)
- 서로를 신뢰한다(Depend on each other)

비뇨기과 관련 질환 시술로 홀렙 수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가 주최하고 (주)원익이 후원하는 '제4회 홀뮴레이저 포럼'이 서울아산병원 서관 3층 강당에서 23일 열렸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이와 비례하여 전립선비대증과 같은 비뇨기과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렙(HoLEP) 수술 기법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순천향대학교 전운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박형근 교수, 서울아산병원 주명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포럼에서는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요로협착 및 요로결석 치료와 전립선비대증의 표준적인 수술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홀렙 수술' 등을 주제를 다뤘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포럼은 홀뮴레이저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요로협착 및 요로결석 수술 사례와 전립선비대증 홀렙수술 사례를 영상과 사진으로 발표하고 이들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





리를 마련해 수술기법에 대한 노하우와 사례 공유
통한 지식의 장을 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립선비대증 등 비뇨기과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전
문의들 간의 토론과 정보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
한 가운데 이번 포럼은 전립선 질환의 새로운 수술
기법 습득에 필요한 러닝커브를 단축시키는데 도

움을 주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서울아산병원 주명수 교수는 “전립선비대증 수술
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된 홀렙 수술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전립선비대
증의 대표수술로 자리 잡았다.”면서 “홀렙 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와 정보교류를 위해서 그리고 요로결석 등 관련 질환 치료법에 대한 폭
넓은 논의의 장으로써 홀뮴레이저 포럼이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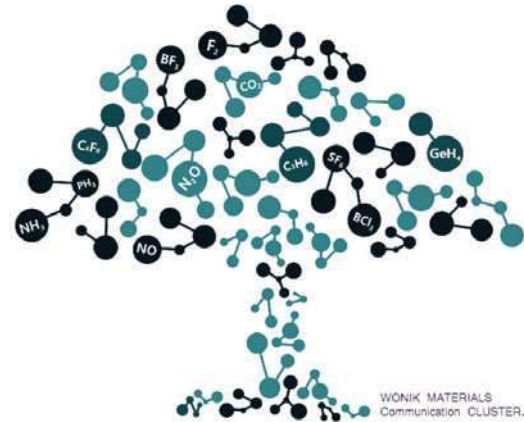
이번 포럼에는 (주)원익에서는 차동익 대표이사와 이창진 상무가 직접
포럼에 참석하는 등 홀뮴 레이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주)원
익은 전립선비대증수술 HoLEP 장비인 ‘VersaPulase Powersuite
100W’를 이미 주요 대형병원에 보급을 완료했으며, 지난 해 7월, 식약
청의 허가를 받아 9월부터 요로결석, 요도협착증 수술용 홀뮴 레이저
기기 ‘P20’을 보급중이다. 기존의 장비가 가진 단점을 보완한 포터블
홀뮴레이저 기기인 P20은 전보다 환자와 의사 모두의 수술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로운 소통으로 '행복한 일터' 를 만든다

기업에는 그 기업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한다. 기업문화에 따라 모든 활동도 변해간다. 그런 이유로 현재 기업들의 화두는 단연 조직문화 개선이다.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활동을 시작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가 기업문화 추진을 위한 클러스터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3월경. 클러스터는 '자유와 소통'을 통해 얻은 행복으로 나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조직됐다. '행복=즐겁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터' 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클러스터는 참여





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모든 임직원들은 클러스터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행복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매주 목요일은 Culture Day로 클러스터 조별, 유닛별 모임을 갖는 날이다.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시간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등 유연하게 변경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다. 한 조당 2개 유닛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모임은 총 5개조가 경쟁적으로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주)원익머트리얼즈에는 최근 활기가 넘치고 있다.

현재 5조 조장을 맡고 있는 김수환 사원은 “현장

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기업문화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들도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5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사원은 “스터디 그룹을 통해 개인이 발전하면 회사도 발전하고, 지식을 쌓아서 돈도 벌고, 그럼 명예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밝혔다. 5조 이름이 ‘부자되기 펀드’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5조에서 ‘공신당’ 유닛장을 맡고 있는 소재법 사원도 “유닛 장을 하면서 리더십도 경험해보고 활동을 하면서 만나기 힘든 다른 팀원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아졌다.”고 전하면서 “액션 아이템으로 공신당 티를 만들어 입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아직 활동 초기라 미숙하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서로 ‘웃으면서 하자’, ‘아이템 괜찮다’ 등 구호도 외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있



다. ‘공돌이들의 신나는 단체’의 뜻을 지닌 공신당은 주로 맛집을 찾아 공유하는 등 신바람 나는 계획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류상용 부장은 “기업문화는 최소 몇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로 현재의 활동 모습을 평가했다. 류

부장은 “다른 팀들을 보면 출발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안착이 빨리 되도록 우리 임원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에서 12시간 이상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클러스터 활동이 진행되면서 임직원들 사이에는 웃음이 많아졌다. 생산 현장에서 바쁘게 생활하면서 얼굴 보기 힘들거나 업무 연관성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도 얼굴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



사무국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서재원 사원은 “현재 진행중인 모든 활동 소식은 카페에 게시해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주)원익머트리얼즈를 알리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또한 연말에는 그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유닛과 그룹을 선정해 포상을 하는 한편 연말 송년의 밤에 시상할 계획도 진행 중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커뮤니케이션 클러스터 카페 “[Http://Cafe.naver.com/wonikcc](http://Cafe.naver.com/wonikcc)”에는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 보다 행복한 직장을 위한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위해 원익인 모두 격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PASSION



42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봉사동호회 한우리봉사단
즐겁게 봉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44 New Employee Training
주원익아이피에스 공채 3기 교육 실시
열정적인 분위기 돋보인 공채입사자 3기 교육현장



46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큐엔씨 원익나눔회 사랑의 도배봉사
도배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다

즐겁게 봉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주)원익머트리얼즈 봉사동호회 한우리봉사단은 지난 4월 14일 에버그린 사회복지재단에서 생활 중이신 한센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심천에 만개한 벚꽃구경에 나섰다. 지난해 봄부터 인연을 맺은 에버그린 사회복지재단 어르신들과 함께 올해도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하면서 봉사의 즐거움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14일 충북 청주 무심천에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에버그린 한센인 어르신들은 분주한 모습이였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한우리봉사단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고 할머니들께서는 화장도 곱게 하셨다. “좋지 좋아”를 연발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봉사단이 도착하기 전부터 모두 들뜬 분위기다.

총 열 세분의 어르신들이 이번 꽃구경을 나섰다. 보행이 불편하셔서 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간만에 나서는 나들이 행사에 모두 적극적이였다. 충북에서 꽃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대청댐과 무심천이 있는

데, 이 중 도시에 위치한 무심천은 접근성이 좋고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이어지는 벚꽃이 일품으로 매년 축제가 열려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마침 날씨도 쌀쌀했던 전날과는 달리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최고의 날이다.



예상보다 무심천의 벚꽃은 훨씬 아름다웠다. 선글라스를 끼고 넘치는 카리스마로 언제나 봉사단을 맞아주시는

윤일섭 할아버지께서는 “식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1달에 1~2번씩 간단하게는 나가도 이렇게 많



이 나가는 건 거의 없는데 원익에서 오면 그나마 이렇게 나온다.”고 만족스러워 하

였다. 류용래 할머니께서도 “꽃구경하기 힘든데 올해 처음 꽃구경 나왔다.”면서 “가슴이 확 트인다. 좋다.”고 웃어 보이셨다. 폰으로 사진을 찍고 벚꽃향기를 맡으면서 어르신들의 기뻐하셨다. 한우리봉사단도 덩달아 마음이 즐겁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전종석 사원은 “이번 해부터 봉사단에 참여를 시작했는데 오늘 어르신들 모두 좋아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다.”

면서 “못해도 두 달에 한 번은 꼭 참가해서 어르신들을 뵈러 오고



싶다.”고 전했다. 물류팀에서 일하는 그는 업무의 특성상 잦은 운전 스케줄로 참여가 불투명할 때가 많지만 항상 봉사단의 다음 스케줄을 묻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병섭 과장과 함께 처음 한우리봉사단을 조직한 김소연 대리는 “어린이 시설에서만 활동하다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에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심정이었다.”고 첫 만남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후 꾸준히 봉사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정말 ‘손자,

손녀’ 처럼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그는 전했다. 김 대리는 “현재는 근교에 머물고 있지만 여건이 된다면 조금 멀리 어르신들과 가고 싶다.”는 소망을 내보였다.



입사 7개월 차인 조원제 총무는 활발한 성격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재롱둥이로 통한다. “처음에는 인사를 드려도 머뭇머뭇하셨던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먼저 반겨주시고 알아봐주셔서 마음이 뿌듯하다.”면서 “꽃구경을 나온 분들인데, 보행이 불편하셔서 꽃구경을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다.”고 안타까워하며 앞으로 꾸준히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거듭 다짐했다.

에버그린 사회복지재단 이계철 총무팀장은 “사회에서 소외와 핍박을 받아온 한센인 어르신들을 밖으로 모시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대인 기피증과 같은 부분들을 (주)원익머트리얼즈 한우리봉사단이 많이 허물어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올해부터 한우리봉사단의 회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재원 회장은 “이번 해 전체적인 봉사 계획은 세워져있다. 회사일정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다음 봉사는 예전부

터 어르신들께서 학수고대 중인 ‘황토오리’를 먹으러 갈 계획이라고 그는 귀띔했다.

2시간여의 일정을 마치고 어르신들과 한우리봉사단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복지시설로 향했다. 어르신들은 손에 든 벚꽃과 담아온 사진들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는 눈치이다. “손자 손녀들과 주말에 밖에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우리봉사단은 다음 봉사를 설렘 속에 준비한다. 함께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봉사지만 그 즐거움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또한 봉사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한다. 한



우리봉사단과 에버그린 어르신들과의 다음 만남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다.

글 김도웅 · 사진 김병관

한우리



열정적인 분위기 돋보인 공채입사자 3기 교육 현장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주)원익아이피에스 공채 3기 입사자의 교육이 안성의 삼보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공채입사예정자 2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5개조로 나뉜 교육생들은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열정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선배를 통해 배우는 회사 실무교육, 입사자에게도 만족도가 높아

연수 2일째 ‘우리회사 문서작성법 및 보고스킬’의 강연을 함장길 부장이 맡았다. 올해로 입사 14년차인 함 부장은 그 동안 쌓아온 회사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지루하지 않게 강연을 이끌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채 3기들도 용기를 내어 의견을 발표하는 적극적인 모

습을 보여줬다.

함 부장은 “회사입사하자마자 12년간 경영기획파트에서 일하면서 겪은 보고서작성과 PPT 발표의 경험을 살려 실무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중요 포인트를 정리하고 경험담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생들이) 입사하자마자 연수원으로 와서 긴장된 모습이었으나, 오늘은 많이 풀려서 수업분위기도 좋다.”면서 “높은 이해도는 물론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줘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교육을 받는 공채3기의 만족도도 높다. 김승우 사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경험담을 살려서 말씀해주신 함 부장님의 교육 덕분에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최연소로 입사한 고연익 사원은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학졸업 후 바로 입사하게 됐는데 빨리 적응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적극적으로 선배님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신입다운 포부를 밝혔다.

가장 연장자로 입사한 김민완 대리는 “다른 사원과는 달리 신입이 아닌 경력으로 들어온 만큼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래전부터 장비개발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세스를 통해 (주)원익아이피에스 형 인재로 거듭난다





‘선배와의 만남’, ‘명사 특강’, ‘팀별 활동’ 등 다양한 커리큘럼에, 일반적인 연수와 다른 내부 인사를 배치한 구성도 눈에 띈다.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에게 의미가 담긴 ‘행운의 2달러’를 강연 중 선물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신선하다.

이 같은 교육은 (주)원익아이피에스 형 인재육성을 위한 일환이다. 자유, 행복, 소통 등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조직문화 전파를 통해 회사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인사팀 교육담당 이승연 대리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외부강사의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췄다.”면서 “조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 또한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입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20%에 달하던 1년 미만 조기퇴사율이 현재 11.3%까지 낮아졌다. 향후 국내 초우량 기업들의 평균인 한 자리수로 낮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는 덧붙였다.

합숙을 마친 공채입사자들은 곧바로 반도체, 태양전지, 특수가스, OLED와 관련하여 전문 교수진과 함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는 OJT의 과정에 돌입한다. 2주간의 OJT 교육 이후에도 공채3기는 온라인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규입사자 입문교육 프로세스를 마치게 된다.

4일간의 연수동안 공채3기는 그들만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 전문 뮤직비디오 제작진에게 자문도 받고 교육시간 외의 점심과 저녁식사 후의 시간을 쪼개어 영상촬영



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공채3기의 열정이 담긴 재치 있는 뮤직비디오는 (주)원익아이피에스 전 직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도배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다



지난 3월 24일 오전, 구미시 인의동의 한 주택가에서 ㈜원익큐엔씨 원익나눔회 봉사단이 도배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전날 흐리고 비오는 날씨 때문에 마음을 졸였지만 다행히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면서 봉사단의 발길을 가볍게 해주었다.



원익나눔회가 도배 봉사를 할 적이면 항상 앞장서서 참여하고 도배 과정을 다른 회원들에게 설명해주는 등 누구보다 열심이라는 것이 주변 회원들의 증언이다. “안 돼”라는 말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다. 즐기는 눈치다.

본격적인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도배가 시작됐다. 2인 1조로 도배지를 벽에 바르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 도배지를 붙이고 골고루 쓸어내리는 동안 계속해서 손을 움직여



본격적인 도배에 앞서 준비하는 과정은 전문도배자격증을 소지한 박성용 기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배용 풀을 만들고 도배지를 재단하고 붙이는 일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2달 뒤면 입사 18년차를 맞이하는 박 기좌는 “4년 전쯤 도배자격증을 땀는데 주변 사람들 도와주거나 봉사를 도맡아 하게 됐다.”면서 “오늘은 짐이 적어서 수월한 편이지만 도배자격증은 절대로 따면 안 돼” 라고 웃음 지었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도 봉사에 참여하느라 집으로 갈 계획을 뒤로 미뤘다고 웃음 지었다.

김은비 사원과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김규태 사원은 대학 때 사회복지학과를 다닌 동생과 함께 자폐아 지도교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 이후 봉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는 전했다. 김태규 사원은 “봉사란 남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가 더 배운다고 생각한다.”면서 “힘든 만큼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야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게다가 천장의 경우는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하니 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서는 기분이 들 정도라고. 그러나 봉사단은 옷에 풀이 묻고 땀을 흘리면서도 봉사하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작년 9월에 입사해 6개월째인 김은비 사원은 “평소에 봉사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닿지 않았다.”면서 “회사 입사 후 이형길 나눔회장님을 통해 봉사단에 대해서 알게 됐고 꾸준히 참여하려고 노력





램팀 근무하는 우광범 사원은 오늘 처음 봉사에 참여했다. 입사한지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좀처럼 틈이 나지 않았지만 같은 팀에 근무하는 박성용 기좌를 따라서 함께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작년 말에 사보를 보고나서 봉사단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서 “새로운 체험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고 첫 참가 소감을 전했다.

엄성진 총무는 도배를 하지 않는 곳에 갈라진 틈까지 확인하는 등 이날 참가한 봉

사단원 모두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도배봉사를 요청한 김성연 할머니(76)는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손자들이 안쓰러워서 돌이서 사용할 방을 단장하고자 도배봉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하셨다. 평소 혈압과 당뇨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김 할머니는 복용하고 있는 약이 한 봉지에 수북이 쌓여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지만 도배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김성연 할머

니는 봉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몸은 힘들어도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원익나눔회 봉사단의 얼굴은 맑게 갠 날씨처럼 밝아보였다. 올 한해 원익나눔회 봉사단의 활동은 꾸준히 계획되어 있다. “양심이 가는대로 움직인다.”는 이들의 말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원익나눔회가 함께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쳐갈 이들을 응원하는 바이다.

글 김도웅 · 사진 정태규

뚜렷한 경제회복 징후 부재에 대응하자



스페인, 이탈리아
금리상승 유럽 발
경제위기 불시
여전히 살아있어

최근 유럽이 다시 한 번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유럽발 경제 위기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 재정 위기 5개국으로 불리는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5개국)에서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 스페인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최근 11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국채 발행 금리가 크게 올라 2.84%에 도달하면서 불안감을 지속시켰다. 이는 지난달 비슷한 국채 발행금리인 1.405%의 두 배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지난해 마리아 몬티 총리의 재정적자 감축 및 경제 성장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2%를 하회해왔다.

스페인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는 장중 한때 연 6%를 넘나들다가 5.98%에서 가까스로 장을 마쳤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위험 수위인 연 6%수준까지 치솟은 것은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부각 시키고 있다.

중 성장부진우려,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가계부담 가중

중국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8.1%로 시장 기대치(8.4%)보다 낮았다는 소식도 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적으로 세계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설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곧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가상승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압력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LPG, 시내버스, 식음료 등 공공요금과 주요 소비재 가격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말 대선까지 인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상승은 이미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와 함께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커,
적극적인 투자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것

아쉽게나마 독일이 유럽 구제기금을 7000억 유로로 일시 증액하는데 합의했고 유럽 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재개된다면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스페인의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내의 상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자산 관리에 대한 걱정도 늘어가고 있다. 해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의 경우 이벤트 발생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는 위험한 상황.

이미 상당수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됐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통해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국내외 악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김도웅

2012년 1월 27일부터 뮤지컬 닥터지바고의 공연이 잠실 사롯데씨어터에서 펼쳐지고 있다. <닥터지바고>는 20세기 태어난 운명적인 남녀의 로맨스를 담은 대 서사극으로 소설과 영화로 이미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해주었다.



공연기간 2012.1.27(금)~2012.6.3(일)
장 소 서울 잠실 롯데씨어터
시 간 평일 8시·토 3시, 7시30분
일, 공휴일 2시, 6시30분/월 공연없음
※수요일 낮 3시 공연있음
관 략 료 VIP석 130,000원·R석 110,000원
S석 90,000원·A석 70,000원
문 의 오픈리뷰 1588-5212
홈페이지 www.doctorzhivago.co.kr

전쟁 속 남녀의 사랑을 담은 로맨스 ‘닥터 지바고’

개월이 걸렸고, 웅장하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들 간의 얽혀있는 사회 구조를 뮤지컬로 실현시키기까지 오랜 기간의 개발과정을 거쳤다. 뮤지컬 <닥터지바고>는 “제 2의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라는 찬사와 함께 2011년 2월 호주에서 성공적인 첫 월드 프리미어를 이뤄냈다.

작품의 스케일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게 하는 무대와 세트는 매력적이다. 4.4도로 경사져 있는 무대, 오래된 러시아 빌딩에서 착안한 기하학적 무늬의 패턴이 디지털 프린팅 된 표면은 인위적 원근법을 통해 전체무대가 실제사이즈 보다 훨씬 크고 깊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준다. 총 30여 명의 등장인물을 위한 약 240벌의 의상과 극 속에 녹아 든 세련된 영상과 조명은 시대상을 완벽히 반영하고 있다. 20개의 스노



우 머신이 사용한 마지막 눈 오는 장면은 <닥터지바고>을 보러온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모습을 제공할 것이다.

뮤지컬 <닥터지바고>는 유리 지바고 역에 지킬앤하이드로 유명한 조승우, 홍광호를 비롯하여 김지우, 전미도, 최현주 등 내로라하는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 관객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탄탄한 스토리와 오랜 시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2012년 최고의 블록버스터로 탄생한 뮤지컬 <닥터지바고>의 공연은 오는 6월 3일까지 이어진다.

원작자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Boris Pasternak)의 소설 ‘닥터지바고’는 당시 러시아의 정치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금서 조치됐으나, 밀반출되면서 1958년 노벨문학상을 수장의 영광을 누렸지만 수상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 스스로 수상을 거부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후 제작된 영화 ‘닥터 지바고’가 1966년 아카데미 5개 부분에서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소설과 영화를 뮤지컬로 구현시키는 과정에서 거대한 스케일을 골라내는 작업만 18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의 전시회가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됐다. 「2012 동화책 속 세계여행,전은 서초구 '동화책속 세계여행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앤서니 브라운의 전시에는 32권의 일러스트 원화 200여 점의 볼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친근한 그림으로 엄마와 어린이에게 사랑받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이번 전시에는 대표적인 '미술연필을 가진 꼬마곰'을 비롯해 '꿈꾸는 율리', '고릴라', '돼지책', '우리는 친구' 등이 전시된다.



앤서니 브라운은 1967년 의학전문 일러스트레이터를 거쳐, 1976년 「거울 속으로」라는 작품으로

데뷔하면서 이후 30여 년간 그림책을 그려왔다. 영국 아동문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에게 주는 '영국 계관 아동문학가(Children's Laureate)'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2000년 그림책 작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까지 수상한 바 있다.

앤서니 브라운은 세계 아이들과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 엄마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3~6세 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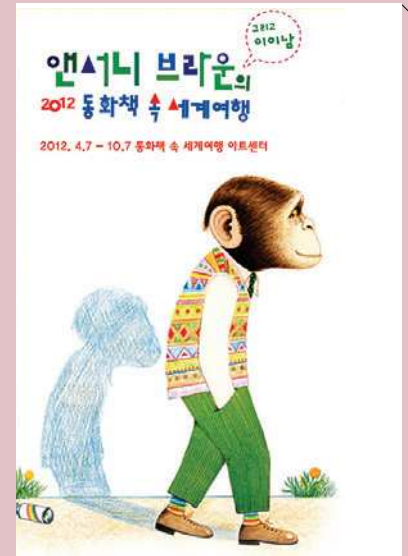
이가 있는 가정의 15%가 그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 그림책에는 고릴라, 킹콩, 침팬지, 개코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작품 속 동물들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타포(metaphor)로 등장한다. 특히 고릴라는 사람의 눈과 다르지 않아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다. 특히 어

릴 적 느꼈던 크고 강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고릴라를 생각한다는 그의 표현처럼 그의 작품 속에 동물은 각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다.

그림을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 전시는 10월 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이남 영상작가는 앤서니 브라운을 작품을 디지털로 재구성해 함께 전시해



전시기간 2012.4.7(토)~2012.10.7(일)
장 소 동화책속 세계여행 아트센터
시 간 AM11:00~PM6:00
(매주 첫째 주 월요일 휴관)
관 람 료 성인(만19세~64세) 10,000원
청소년/어린이(만2세~만18세) 8,000원
문 의 02-3143-4360
홈페이지 <http://www.anthonybrowne.co.kr/>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이자 창조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못하는 것 같아’라고 자책하는 생각을 멀리하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빼앗아 갑니다.”

황사의 계절인 4월과 5월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는 대부분이 중국의 사막화로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다. 미세먼도 수치도 높아지면서 만성 호흡기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봄철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예방책을 소개한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봄철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자

황사 특보 발효 시 외출할 땐 황사마스크 착용

특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하지만 밖에서 업무를 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이를 따르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땐 반드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 마스크와 달리 황사마스크에는 미세 모래먼지 입자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천식환자의 경우 반드시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보호안경을 쓰고, 콘택트렌즈 착용은 삼가야 한다. 귀가 후 인공누액이나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 황사에 섞여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예방해야 한다.



눈, 기관지 보호를 위한 차

봄철 황사로 인해 코와 눈이 먹먹하고 뻑뻑해지는 경우, 눈에 좋은 결명자와 구기자를 넣은 차를 마시면 좋다. 기관지에 좋은 오미자도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 미리 끓여놨다가 식혀먹으면 효과가 있다. 또한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는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등 폐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재로 예로부터 진해, 거담 약재로 쓰여 왔다. 도라지 차는 보통 감초와 함께 달여서 마시는데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 감초와 꿀껌질, 설탕, 꿀을 넣기도 한다.



비염과 피부병 예방도 각별히 신경

황사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세먼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외출하고 온 뒤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미지근한 물이나 식염수를 콧속에 흘려 먼지를 씻어내야 하고 외출 시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로션을 바르거나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또한 황사에는 먼지와 함께 미세한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와 같은 길에서 파는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프락셀 듀얼 리서페이싱(resurfacing)

두가지 소스의 non-ablative laser를 이용한 효과적인 ablative results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 과 '사용방법' 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기타레이저수술기 : 방사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 시 사용하는 레이저 기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10층, 23층
TEL. 02) 555-4939 FAX. 02) 554-5324